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 개발 IT경쟁력을 통한 리딩뱅크 구현

글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1972년에 설립된 HK상호저축은행(대표 김명도)은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부동산임대업무 등이 주요 사업이다. 본점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부 6부 1실, 영업점은 15개 부점에 25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HK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는 6월말이다. 올해 5월까지 작년 9월에 개발 완료된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을 현업이 활용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 구축

HK상호저축은행 온라인 시스템은 지난 1999년에 구축되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극복의 필요성과 정보기술 발전 및 금융정보 기반기술의 변화에 따른 선진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미래 경쟁력 및 IT경쟁력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HK상호저축은행은 내외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창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첨단 IT인프라 구축으로 모든 업무의 신뢰성있는 기반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금융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요 구축내용을 보면 코어뱅킹 솔루션으로 국내 다수 은행적용 사례를 보유한 (주)큐로컴의 뱅스(BANCS)기반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고객중심의 시스템, 금융상품의 관리기반 확보, 기능중심 위주의 프로세스 처리, 24×265 금융서비스 구현하였고, 한국IBM p사리즈를 도입해 두 대의 서버에 나눠 동일한 업무가 운영되는 클러스터링도 구현하였다. HK상호저축은행은 이를 통해 가용성을 10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요 소프트웨어로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미들웨어는 Tmax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고성능, 대용량 처리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고 웹기반의 통합 단말 시스템을 구축하여 HOST와 단말의 유연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졌다. EDMS 시스템을 구현하

여 여신, 수신 및 영업지원의 핵심 프로세스를 이미지화하여 은행 후선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시스템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백업센터와 DR센터 구축 계획

HK상호저축은행의 정보시스템부는 IT개발팀, 전자금융팀, IT정보팀,



왼쪽부터 위석명 행원, 김변주 팀장, 김여진 행원, 정태균 팀장, 장세문 대리

IT기획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박기천 부장 이하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IT기획팀은 시스템 운영(H/W), S/W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제, 통합단말시스템 관리, 전산연수 등을 담당한다. 정태균 팀장은 "IT기획팀에서는 장애대비를 위한 DR센터 구축,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이수시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HK상호저축은행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전산팀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면 외부교육을 통해서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IT개발팀의 주요업무는 수신업무, 여신 및 공통업무, 이율 및 세율관리 업무이다. 황승호 팀장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텔러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IT정보팀은 인사·급여·연말정산 등 후선지원 업무와 경영지원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변주 팀장은 "경영지원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통계내고 분석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전자금융팀은 고객관리, 대외 및 회계업무, 홈페이지 및 인터



왼쪽부터 장정현 팀장, 박정미 주임, 장희경 주임, 황승호 팀장, 이윤호 대리, 정성택 행원, 김준희 주임

넷 뱅킹 업무를 담당한다. 장정현 팀장은 "중앙회와 맞춰 4대 공과금, 국고수납에 대한 금융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모바일뱅킹, 인터넷대출시스템, PDA 시스템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K상호저축은행 정보시스템부는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리딩뱅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백업센터와 DR센터 구축, 그룹웨어의 재구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Users

박기천 부장 인터뷰

PM의 리더십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2004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9월에 오픈했지요, 작년 5월부터는 주말, 휴일도 없이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PM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시에 PM의 역할이 부족해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매끄럽게 끌고가는 PM의 리더십이 개발된 후 성공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은 HK상호저축은행이 향후 금융시장에서 수익기반구조 및 미래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변화된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해요. 지금 까지도 과거 시스템 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점이 많아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요, 현재는 우리도 변화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저는 지점과 소비자금융부에 근무하면서 현업과 전산부서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전산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